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남도정

1990년 12월 15일 창간 안내 041-635-2484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제1062호
2026년 3월 15일 ~ 2026년 3월 24일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집에서 받는 의료·요양…통합돌봄 3월 27일 시행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대상
장기요양·생활돌봄 등 30종 제공

앞으로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통합돌봄)제도를 시행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수준과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다.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가 연계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퇴원환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1-635-4218

통합돌봄 이런 분께 도움 됩니다

-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 집에서 돌봄이 막막한 경우
- 가족이 돌보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다양한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2. 상담·조사·서류 제출
3. 결과 확인 및 서비스 이용 시작
4. 상황이 바뀌면 서비스 조정

통합돌봄 둘러보기

통합돌봄 누리집
(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



당진시민이 만드는 기지시줄다리기 큰 줄 당진시민들이 3월 14일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근처에서 오는 4월 열리는 기지시줄다리기(국가중요무형문화 제75호)에 사용할 큰 줄을 만들고 있다. 큰줄은 길이 200m, 지름 1m 크기로 만들어지며, 보존회에서는 2월 말부터 기지실줄다리기에 사용하려고 짚단 4만단을 준비해 소줄에 이어 중줄, 큰줄을 차례차례 만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사진/당진시

'고향사랑 답례품' 10개 추가 선정

곶감·키조개·맥주·소금 등

충남 고향사랑 답례품이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품목은 곶감, 키조개, 맥주, 소금, 밤파이, 김치, 표고버섯, 피클세트, 온천수미스트, 표고버섯 가공세트, 누룽지 등 10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으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기부금의 30%)과 함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새마을공동체과 041-635-2312

보령머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축제 선정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서 개최

충남 대표 여름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2026~2028년 글로벌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관광공사)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선정했다.

앞으로 글로벌축제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머드)을 활용한 '케이-뷰티'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드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머드몹신'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해 보령머드축제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며, 다양한 머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연계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케이케이데이(KKday), 크룩(Klook) 등 해외 주요 온라인여행사(OTA)와의 협업을 지원한다. 〈관련 6면〉

/관광진흥과 041-635-3892
/문화체육관광부

※ '26~'28 글로벌축제 및 '26 예비 글로벌축제

지역	축제명	선정 유형
보령	보령머드축제	글로벌축제
안동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글로벌축제
진주	진주남강유등축제	글로벌축제
대구	대구치맥페스티벌	예비 글로벌
부산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예비 글로벌
순창	순창장류축제	예비 글로벌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예비 글로벌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국가보물 지정 예고	2면
지역작가 발자취	4면
제28회 논산딸기축제	6면
충남 봄꽃 명소	8~9면
충남이어가	12면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유효걸·윤증 초상 국가 보물 지정 예고

용봉사·부석사 불상 등 6건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고시

충남 문화유산이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잇달아 지정(예고)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조선시대 초상화인 「유효걸 초상 및 궤」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물 「윤증 초상 일괄」에는 초상 1점과 영당기적 1점을 추가해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효걸 초상 및 궤는 인조 2년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신 유효걸을 17세기 당시 전형적인 양식으로 그린 것이며, 초상을 보관하는 궤가 함께 전해져 사료적 가치가 높다.

머리에 사모를 쓰고 관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자세를 취하고 앉아 있으며, 화면상에 왼쪽 얼굴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을 취하였다.

현재 천안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유효걸 초상.

보물로 지정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장의 윤증 초상 일괄에는 19세기 당대 최고의 화가 이한철의 작품인 윤증 초상 이모본(1885년)과 당대 최고의 화가를 초빙해 초상화를 다시 제작한 내력을 정리한 영당기적(1744년)이 추가로 지정 예고됐다.

이모본(원본을 보고 옮겨 그린 그림)에는 각 화가들이 활약하던 시기의 화풍과 개성적인 수법이 가미되어, 각 화가와 시기의 수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아울러 도는 도 유형문화유산 6건을 지정 고시했다.

홍성 용봉사와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홍성 용봉사 목조여래삼존상'과 '서산 부석사 목조여래좌상'은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미루어볼 때 17세기 후반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두 불상은 '계주'라는 조각승에 의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주 마곡사가 소장하고 있는 당대 이름난 선사들의 진영(초상화)도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보물 2건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관보 고시를 통해 보물로 최종 확정되며, 도 유형문화유산 6건은 도보 고시를 통해 지정 확정된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과 041-635-3914



퀴즈로 다문화 이해 높여

3월 11일 충남도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다문화 인식 확산 캠페인 '다함께 빛나는 날'이 열렸다. 이날 캠페인은 도청어린이집 재원생을 비롯해 도청 방문객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상 및 놀이체험, 다문화 수용성 지수 퀴즈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외국인정책과 041-635-4993

'베트남 씨큐텍' 참여 기업 모집

3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는 3월 27일까지 '2026 베트남 씨큐텍(Secutech Vietnam)'에 참여할 재난안전분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며, 보안·화재 안전·스마트빌딩·산업 안전 등 재난안전 분야 전시회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재난안전 제품 및 기술 보유 중소기업으로, 심사를 통해 총 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품 왕복 물류 운송비, 현지 1대 1 전문 통역, 사전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등을 지원한다.

단 기업 체재비와 물류 한도 초과 비용은 참여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도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산업팀(☎041-635-5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정책과 041-635-5630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 운영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가입

충남도내 육상축제식 흰다리새우 양식 어가를 위한 재해보험이 운영된다.

도에 따르면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서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소지하고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이다.

보장 범위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등 주계약 사항과 더불어 특약 가입 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및 낙뢰·정전에 의한 전기적 장치 사고 등이다.

가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가입 심사 기간(15일)을 고려해 관할 수협에 조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전국대표번호(☎1588-4119) 또는 충청본부(☎041-939-9701-3)로 문의하면 된다.

/수산자원과 041-635-2774

아산 메추리 농장서 AI 항원 검출

축사·농기계 소독 당부

충남도는 3월 9일 아산시 도고면의 A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원 검출은 24만여의 메추리 사육 중인 A농장주의 메추리 폐사 급증 신고로 정밀 검사 실시한 결과, 이날 저녁 10시경 H5형 항원이 최종 확인됐다.

도는 도내 각 농가에게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축사 안팎 소독 강화, 농기계 사용 전후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농기에는 농기계와 사람들의 농장 주변 이동이 잦아지는 만큼 다음과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①기계 농장 내 반입 금지 및 농기계 공동사용 절대금지 ②농기계 및 작업 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필수 ③축산 차량 이동에 따른 농가 간 역학 최소화 및 차단방역 집중

한편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은 도내 마지막 발생(2월 5일) 이후 32일 만이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6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수칙

특별기고

2025년 11월 24일, 당진 지역 양돈농가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벌써 홍성, 보령, 당진 등 양돈농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추가로 3건이 발생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소식에 따라 TV 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예방 행동수칙들이 안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떤 질병인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우리가 지켜야 할 차단방역 행동수칙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돼지과 동물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강해 오염된 돼지고기나 식육 가공품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바로 '차단방역'입니다. 차단방역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예방 활동을 의미합니다. 농가의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협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양돈농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축사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전용 작업복과 전용 신발을 착용하여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돼지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고열, 식욕부진, 갑작스러운 폐사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야생 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절대로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로의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요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현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귀국 후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축산농가 방문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 질병이 확산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차단방역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축산농가의 노력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행동수칙을 지켜줄 때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박효선 과장

도민안전보험으로 생활 안정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충남도민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으면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장소가 전국 어디든(약관에 따라 해외 포함)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시군별로 상이하나,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주로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피해 등도 반영돼 있다.

자연재난과 익사사고 등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지급여부(필요시 사고조사)를 판단해 피보험자 개별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세한 보장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정책과 041-635-5630

청년이 직접 지역 건강 돌본다

4월부터 청년사업단 운영

보건복지부는 신체 건강 등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년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6개 청년사업단이 새로 선정됐으며, 충남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곳이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신체 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기관은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청년에게 전문 트레이너를 통해 1대 1 맞춤형 신체 운동 지도를 제공하는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별로 서비스 제공 시기는 다르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46

"인삼밭 해가림시설 꼭 설치하세요"

늦서리 등 기상 재해 피해 예방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3월 중순까지 인삼밭 해가림시설을 설치해야 지난해 가을 파종한 종자의 뿌리 활착 및 각종 기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인삼 종자는 월동 후 토양 온도가 약 5℃에 도달하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토양 표면에서 약 2㎝ 깊이에 위치해 있어 건조 피해를 받기 쉽다.

장기간 강우가 없으면 토양이 빠르게 건조해 발근이 지연되거나 종자가 말라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토양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출아 시기가 빨라질 경우 늦서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인삼밭 해가림시설 설치 모습.

적기에 설치한 해가림시설은 토양 수분 증발을 줄이고, 토양 온도 상승을 완화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471

유관순횃불상 수상자 23명 선정

4월 1일 독립기념관서 시상

유관순상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5회 유관순횃불상 수상자 2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관순횃불상은 18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상으로, 전국 고교 1학년 여학생과 만 16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해 시상한다.

수상자는 경지우(이화여고), 권재이(서울외국인학교), 김민주(도담고), 김서윤(대전여고), 김시현(천안청수고), 김지수(쌘볼여고), 김하은(성신고), 박지인(공주영명고), 백은별(안양예고), 신지원(건양고), 신채윤(강릉여고), 심나연(송악고), 이채은(효성고), 이하은(공주사대부고), 임다연(원곡고), 임서진(전북과학고), 장주현(배방고), 정효진(인월고), 조서인(호서고), 최현서(용인외대부고), 허지아(반여고), 홍주하(대전노은고), 황서현(함열여고) 등 전국 9개 시도 총 23명이다.

시상식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30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정책과 041-635-4973



그림으로 보는 충남의 과거와 오늘

옛 한일은행, 붉은 벽돌 인상적

강경근대역사관(옛 한일은행 강경지점)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1913년 붉은 벽돌조에 화강암 장식을 더해 세련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보존 상태도 양호해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지붕을 복구해 2012년부터 강경근대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아침, 지붕은 오묘한 색으로 물듭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에 잠시 젖어들다가 문득 이곳에 깃든 우리 역사의 발자취가 떠올라 마음 한켠이 쓸쓸해집니다.



/그림 · 글 어반스케치 작가 최미경



충남도정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편집인 공보담당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484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 리각미술관 야외조각공원 작품 '응축형의 변주'

◀ 리각미술관 전경.

철의 침묵 속에서 역동하는 생명력 깨우다

충남 지역 작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12〉 이종각



이종각 작가. /리각미술관 제공

생동하는 철의 언어

봄이 오는 길목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생명력을 느끼고 싶다면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리각미술관이 제격이다. 태조산을 마주한 미술관에는 조각가 이종각이 평생 추구해 온 '철의 언어'가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차가운 금속에서 역동적인 생명력을 길어 올린 그의 작품은 마치 대지의 기운을 받아 꿈틀거리는 생명체처럼 다가온다.

조각가 이종각(1937~)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덴마크 왕립미술학교에서 국제적 감각을 닦은 한국 현대 조각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와 학장으로서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김세중조각상, 김수근문화상을 석권하며 독보적인 예술적 성취를 증명해 보였다. 특히 상파울루 비엔날레, 한일현대조각전 등 세계를 무대로 조각의 본질인 '공간의 확산과 응축'에 천착해 온 그는 차가운 철을 휘고 응축하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 그 속에 갇혀 있던 뜨거운 에너지를 해방시켰다.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채 숨쉬는 듯한 조각상 사이를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생동감이 피어오른다. 이는 작가가 차가운 철과 벌인 사투가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숭고한 여정이었음을 증명해 준다.

구상에서 응축까지

조각가 이종각의 작품 세계는 시대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1960년대 철을 용접해 만든 여인상이나 동물상 같은 구상 작품을 시작으로, 70년대에는 토막 난 기차 레일을 자유자재로 변형해 독립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레일〉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어 80년대에는 박스형과 파이프형 같은 단순한 구조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완성된 작품이 내뿜는 에너지가 주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확산공간'을 탐구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육중한 쇳덩어리가 빚어내는 극적인 긴장감을 포착한 '응축형' 작업을 통해 물체 내부의 운동성과 생명력을 표현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그의 조각이 철이라는 재료 속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힘의 분출을 시각화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철이 가진 단순한 물리적인 속성을 넘어 그 안에 깃든 우주적인 생명력의 본질을 찾아가는 '물성과의 대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구상에서 응축까지 시대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조각의 가능성을 확장한 그의 창작 여정은 조각이 물질과 공간이 만나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생명력의 표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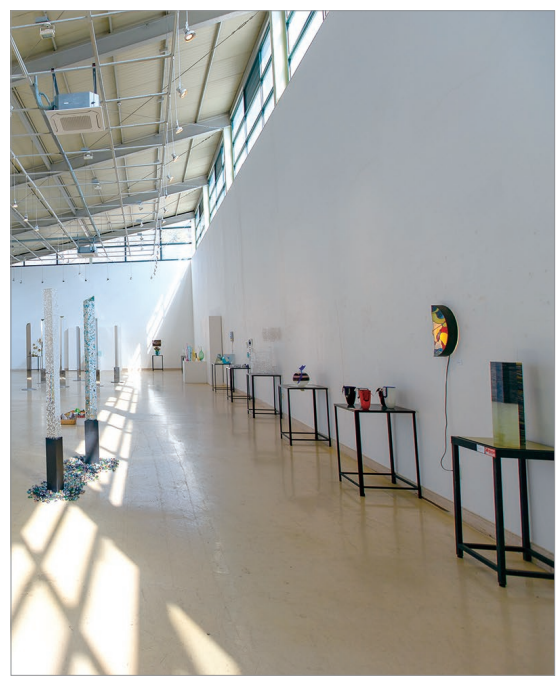
자연과 예술의 쉼터

리각미술관은 1997년 완공되어 현재 제1종 전문미술관으로 등록된 문화 명소이다. 약 5000평 규모의 광활한 야외 조각공원에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종각 작가가 일구어온 대형 조각품 30여 점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자연 광선과 바람에 따라 시시각각 표정이 바뀌는 거대한 철제 조각들은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미술관 내부는 유연한 흐름을 가진 1, 2층 실내 전시실과 야외 조각공원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카페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작가의 정수가 담긴 작품들과 현대미술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기획전이 교차한다. 나아가 대중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작가와의 대화, 인문학 강좌,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으며, 특히 야외 테라스는 자연의 숨결 속에서 예술적 여운을 음미하며 휴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다.





▲ 뮤지엄호두 전시실 내부.
◀ 리각미술관 제1전시실.
▼ 리각미술관 테라스.



천안 미술관 여행

천안에서 예술 작품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 먼저 아라리오갤러리조각광장을 들러보는 것이 좋다. 천안의 관문에서 만나는 이 광장은 데미안 허스트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거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일상에서 현대미술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어 리각미술관을 관람한 후 광덕면에 위치한 뮤지엄 호두에 들러보자.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천안의 핫플레이스로, 부드러운 건축미와 세련된 전시가 리각미술관의 중후함과 멋진 대비를 이룬다. 뮤지엄호두에서는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11기 입주작가의 결과보고전 「늘, 봄봄」이 3월 29일까지 전시 중이다. 7명의 작가가 2년간의 레지던시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화,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새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천안에서의 미술관 여행이 깊은 울림과 새로운 영감을 일깨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글·사진
장수현 시인

서산 가로림만 드론 배송 시작

금·토·일요일 하루 9회 운영
지역화폐 연계 앱으로 주문

서산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가 3월 6일 시작했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라스트마일 드론 배송 ▲지역순찰 및 수색 ▲보건의료 행정 지원 드론 배송 실증 ▲택배 드론 배송 실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스트마일 드론 배송은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해수욕장, 삼길포 좌대 낚시터 등에 다양한 물품을 드론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금·토·일 하루 9회씩 운영되며 주민과 관광객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전용 앱을 통해 필요 물품을 주문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초기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밤 시간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순찰 및 수색 복합 임무는 드론 배송 중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사건·사고 예방과 초기대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의료 행정 지원 및 택배 드론 배송은 올해 본격적인 실증이 이뤄진다.

/서산시


3·10학생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예당호서 전국낚시대회 개최

3월 26일까지 선착순 500명
예당내수면어업계 누리집 접수

전국 낚시인들이 예당호에 모인다. 3월 28일 예산군 예당전국낚시대회장에서 '제21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레저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관광 행사로 전국 낚시 동호인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민물낚시 행사다.

참가 신청은 3월 9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예당내수면어업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지난해 진행된 예당호 낚시대회.

시상은 ▲1위 트로피·상금 500만원 ▲2위 200만원 ▲3위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여자우수상 ▲최대어상 ▲외래어종 퇴치상 ▲최고령상 ▲원거리상 등 특별상도 마련된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중식 제공과 함께 광시한우 구이 시식 코너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당내수면어업계(☎041-333-0545) 또는 군 축산과(☎041-339-7823)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군

107년 전 그날의 함성 재현

당진 면천공립보통학교서
3.10학생독립만세운동

당진시 면천면 일원에서 3월 10일 면천공립보통학교 3.10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 재현 행사가 지역 주민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면천공립보통학교 3.10학생독립만세운동은 107년 전인 1919년 3월 10일, 당시 16세였던 면천공립보통학교 4학년 원용은이 3.1운동을 목격하고 당진으로 내려와 동급생 박창신, 4학년 급장 이종원을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면천면 동문 밖 저수지에서부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천공립보통학교 교문까지 행진한 사건으로, 광주학생항일운동보다 10년이나 앞선 학생 주도의 독립운동이었다.

비록 일제의 저지로 중도 해산됐지만 면천공립보통학교 3.10학생독립만세운동은 서울의 3·1 독립운동을 목격한 학생들이 귀향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독립운동사에 선구적 의미가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0일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면천공립보통학교 3.10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독립선언문 낭독 ▲3.10학생독립만세운동 노래 제창 ▲만세운동 재현 행진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했으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당당히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

백제역사문화관, '백제역사박물관'으로 새출발

연말까지 개관 20주년 특별전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역사문화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백제역사박물관'으로 공식 명칭을 바꿨다.

도에 따르면 백제역사문화관의 명칭을 백제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전문박물관에서 종합박물관으로 유형 변경 등록을 완료했다.

백제역사박물관은 2006년 개관 이후 20년간 유물 확충, 전시·교육·소장품 관리·문화 행사 운영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유형 변경 등록을 마쳤다.

백제역사박물관은 앞으로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서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전시와 교육,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백제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전달한다.

오는 12월까지 백제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스무 해의 여정, 세계유산 백제를 잇다'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전시 콘텐츠를 중심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은 백제인의 삶과 문화, 숨결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백제역사박물관은 부여 백제문화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문화유산과 041-635-7712

홍성 초·중학생 승마체험 지원

'호스피아' 회원가입 후 신청
최초 전입 학생 우선 선발

홍성 초·중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여가생활 제공을 위해 승마체험이 지원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승마(기초형)와 사회공익승마(생활)로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승마는 자부담 30%(9만 6000원), 사회공익승마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8일까지 포털사이트에 '호스피아'를 검색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승마체험 모습.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며, 해당자는 호스피아로 학생승마 체험 신청 후 주민등록초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 이후 5일 이내에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홍성군

충남으로 가는 길

독자투고

학창 시절만 해도 교과서는 내게 멋없고 재미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어른이 돼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는 중고생 때의 국어 교과서에서 접했던 문학 작품들의 제목이나 구절이 장르를 불문하고 불쑥불쑥 떠올라 아련한 향수를 느낀다. 팍팍한 삶 속에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 추억 속 작품들을 찾아보는 일도 잦아졌다. 그 가운데 대표작이 바로 이상보 수필가가 오십여 년 전에 발표해 1980년대 초반까지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기행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누가 보면 청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감상에 젖기 시작한 계기는 내 나이 이십 대 때인 근 삼십 년 전 여름에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충남 공주시의 계룡산 국립 공원으로 1박 2일 간의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당시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은 즉흥적이었다. 여행지를 계룡산으로 정한 것도 우연에 가까웠다. 계룡산이 내가 사는 전주에서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계룡산은 커녕 충나은 둘 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곳이라 호기심의 마음이 금방 맞았다.

나이 오십을 훌쩍 넘긴 지금 돌이켜 보면 나는 교과서로, 그리고 충남과의 첫 인연을 통해 더 너른 세상을 만났다. 친구와 함께 낯선 여행지로 떠나고서 더 가까이하게 된 교과서에는 교훈이나 지식 말고도 사람의 향기와 삶의 풍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추억을 누린 교과서는 밤하늘의 별처럼 세상과 은근하게 소통하며 저보다 더 반짝이는 길을 내게 제시해 줬다. 나는 어쩌면 운 좋게 교과서에 난 창문을 발견하고 커튼을 열어젖혀 환한 세상을 만났을지 모른다. 거기엔 충남이란 공간이 멍석 같은 역할을 해 줬음은 물론이다.

요즘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나는 잠을 쉬이 못 이룰 만큼 애틋한 상념에 잠긴다. 시작은 파문(波紋)같이 잔잔했을지라도 종국엔 어느 길이 진정 잘 사는 길인지 알려 준 교과서와 충남과의 인연에 감사한다.

/김완수(전북 전주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보내는 곳 : cnnews@korea.kr
*원고 800자 이내, 성명·전화번호·주소·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문의 : 041-635-4938
*도정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줄 제작 돌입

3월말까지 짚 4만단 활용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축제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가 2026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위한 줄 제작에 본격 돌입했다.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는 2월 25일부터 35일간의 줄 제작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큰 줄 제작 중으로 이 줄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관광객들이 당길 줄이다.

보존회는 3월 말까지 매일 20여 명이 참여해 총 짚 4만단으로 줄을 제작할 예정이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보존회원과 지역 주민이 큰 줄 재료인 작은 줄을 제작하고 3월 12일부터는 각 3가닥의 중줄로 만든다.

3월 13일과 14일에는 500명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큰 줄 2개 제작을 완료한다.

이어 3월 말까지 암숫줄 길이 각 100m 큰 줄에 머릿줄, 곁줄, 손잡이가 되는 젖줄을 만들어 기지시줄다리기 줄을 완성한다.

/당진시

'상큼·달달' 딸기축제로 봄 나들이

3월 26일 논산시민가족공원서
체험·공연 등 40개 프로그램



지난해 진행된 딸기축제.

제28회 논산딸기축제가 '논산딸기, 세계를 유혹하다'를 주제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딸기 수확 체험과 딸기 판매장, 주제홍보관 등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총 8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분야별로는 ▲주제 프로그램 5개 ▲글로벌 프로그램 5개 ▲방위산업 프로그램 3개 ▲공연예술 9개 ▲체험놀이 6개 ▲N-로컬문화 5개 ▲포토존 4개 등이다.

특히 항공 헬기 탑승 체험 등 국방·군수산업 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헬기 탑승 체험은 평소 접하기 힘든 육군 항공 헬기를 직접 탑승해 하늘에서 논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딸기축제의 즐거움에 색다른 비행 경험을 더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인기 프로그램이다.

탑승 기종은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헬기인 수리온(KUH-1)과 블랙호크(UH-60)이며, 육군항공학교에서 이륙해 논산의 명소인 탑정호 상공을 거쳐 돌아오는 약 15분 과정(코스)로 운영된다.

총 탑승 인원은 540명으로, 이 가운데 100명은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나머지 440명은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추첨으로 선정했다.

또 글로벌 퍼레이드와 글로벌 조형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축제 공식 캐릭터 '베리프렌즈'를 활용한 포토존과 기념품 판매도 진행한다.

대전의 유명 제과점 성심당을 비롯해 오뚜기, 크라운해태 등 기업들도 참여해 논산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논산시/논산시



보령머드축제 7월 24일 개막

40여개 프로그램 구성
머드마사지존 등 신설

올해로 29회를 맞는 보령머드축제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간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체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관광객들은 기존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고, 추가된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는 총 5개 분야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한 머드나잇 퍼레이드, 셀프머드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머드캐스크존', 주중 일반존 야간개장 시범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패밀리존 업그레이드와 머드와 공연이 결합된 빅 머드쇼도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 중 하나다.

축제 공간 구성도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재편됐다. 머드엑스포광장 내에는 일반존, 패밀리존, 워터파크존으로 구성된 머드체험존이,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 공연,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간편 먹거리와 지역체험부스를 갖춘 대형텐트도 운영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머드캐스크존은 바다, 체험, 음악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음악을 들으며 셀프머드마사지를 즐길 수 있다.

/보령시

태안 펫니스 댕댕투어 6월까지 운영

반려가족 120팀 대상 6회


댕댕투어 진행 모습.

태안군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전용 버스를 타고 지역 명소들을 둘러보는 '펫니스 댕댕투어'를 3월부터 운영한다.

3월 28일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20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맞춤형 관광 코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는 그동안 반려가족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대형견 동반 투어도 포함됐다. 대형견 출입이 가능한 뭍닭섬, 팜카밀레, 펫빌리지와 연계한 코스를 두 차례 이상 편성할 방침이다.

중소형견 코스는 꽃지해수욕장과 청산수목원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투어 일정에는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도 포함된다.

3·4월 투어는 로망스투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코스별 신청 일정은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관광진흥과에 문의하면 된다.

/태안군

당진 맨발 산책로 재개장

계림·채운공원 등 4곳


계림공원 맨발 산책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영이 일시 중지됐던 당진시 맨발 산책로 4곳이 재개장됐다.

이번에 개방하는 곳은 ▲계림공원 ▲채운공원 ▲기지시공원 ▲터미널 옆 녹지 총 4곳이다.

앞서 산책로는 겨울철 사고 및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운영이 제한됐었다.

재개장을 앞두고 산책로의 노면을 고르게 정비하고 수도 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주변 환경 정화를 마쳤다.

맨발 산책로는 상기 개방된 공원과 녹지에 조성돼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맨발산책로 내 신발 착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비치된 신발보관함과 세족장 등을 자율로 사용하면 된다.

/당진시

금산 남일면에 홍도화 만개

4월 18~19일 축제 개최

금산군 남일면 홍도화 축제가 4월 18일에서 19일까지 2일간 남일면 홍도화 마을(남일면 신정2리)에서 개최된다.

행사 당일에는 ▲남일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공연 ▲지역 초청가수 공연 ▲사사학교, 별무리학교 학생 공연 ▲이혈, 향주머니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지역의 문화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선보인다.

홍도화 나무 묘목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홍도화는 붉은빛을 띠는 복사꽃으로 매년 봄 남일면 일대에서 만개해 장관을 이루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금산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맛있는 충남’

(7) 서산 달래



▲ 충남관광캐릭터 워디가디





서산달래는 영양 가치도 뛰어나다.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은 원기 회복과 자양 강장에 도움을 준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육류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한다. 비타민이 풍부해 춘곤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이기진

제철맞은 달래로 봄 기운 불어넣자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너도나도 바구니~ 옆에 끼고서, 달래 냉이 씀바귀~ 나물 캐오자, 종다리도 높이 떠~ 노래 부르네” 김태오 작사, 박태현 작곡의 동요 ‘봄맞이 가자’의 가사 일부다. 상큼한 봄나물을 노래했다. 박목월, 신경림 같은 근현대 시인들도 농촌이나 봄을 노래하는 시에서 달래, 냉이, 쑥 등을 자주 등장시켰다.

이 중 봄기운을 불어넣는 달래가 제철을 맞았다.

달래의 국내 최대 생산지가 바로 우리 고장 서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국내 달래 생산량의 60~70%로 경남 남해, 전북 고창 등지를 제치고 압도적 1위다. 서산은 전국 최초로 서산달래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달래는 오랫동안 재배 작물이라기보다 채취 식재료에 가까웠다. 밭 가장자리나 논두렁, 낮은 구릉지에서 겨우 내내 언 땅을 비집고 나온다. 추운 겨울을 넘긴 달래는 향이 진하고 맛도 알싸하다.

황토·해풍이 키운 봄맛

서산은 달래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유기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서해에서 불어오는 해풍, 넉넉한 일조량까지, 봄철이면 산과 들에 야생 달래가 널려 있다.

서산에서 달래 재배를 본격화한 것은 1960년대. 산과 들에서 채취하던 자연산 달래를 텃밭에서 기르다 1970년대부터는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를 해 오늘날 ‘서산 달래’의 명성을 얻었다.

서산은 오랜 노력을 거쳐 우량 종구(種球)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재배기반을 구축했다. 출하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2~3기작으로 효자 작목이다.

현재 운산면· 해미면· 음암면을 중심으로 500여 농가가 280여 ha에서 연간 1000~1200톤 가량을 생산한다.

재배 농민들은 “달래는 대부분 손으로 심고 캐야 하는 정성이 들어가는 작물로, 서산달래를 한번 맛본 소비자는 반드시 다시 찾는다”고 자랑했다.



봄달래 양념불고기.

뛰어난 영양 달래로 원기 충전

서산달래는 영양 가치도 뛰어나다.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은 원기 회복과 자양 강장에 도움을 준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육류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한다. 비타민이 풍부해 춘곤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고기 요리나 비빔밥에 곁들여도 좋다.

최근에는 서산시와 이마트가 협력해 ‘달래 불고기’도 출시했다. 대파 대신 향긋한 달래로 대체한 것.

달래를 고를 때는 뿌리가 통통하고 알이 굵으며 뿌리와 잎끝이 싱싱한 것을 골라야 한다. 손질할 때는 알뿌리의 겉껍질을 벗긴 뒤 뿌리 안쪽의 검은 돌기를 제거한 뒤 식초를 탄 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된다.

달래를 보관하는 방법은 물을 살짝 뿌려 종이 행주에 싸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50년 넘는 재배 역사와 자연환경이 빚어낸 서산 달래는 이제 계절 나물을 넘어 사계절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명 품 농산물로 자리잡았다.

달래 구매 및 요리법

서산달래는 굳이 서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명세 만큼이나 국내 웬만한 대형마트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전국 100개가 넘는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G마켓, 옥션, e마트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서산달래’로 검색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만큼 서산달래가 유명하다.

대략 한 묶음, 두 묶음 단위로 포장돼 판매된다. 1차로 씻은 음암면 생산의 달래 한 묶음(100g)이 7000원, 400g이 1만 6000원 선이다. 달래와 함께 봄나물 대표 주자인 냉이와 묶은 서산냉이달래세트(냉이 300g+달래 1묶음)는 옥션에서 1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당일 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집으로 배달된다.

서산은 달래와 함께 냉이로도 유명하다.

서산 냉이는 10월에 파종해 이듬해 2월과 3월에 만나게 된다. 한겨울 추위를 이겨낸 냉이는 뿌리가 실해 봄철 사라진 입맛을 돌아오게 한다. 향이 강하고 잔뿌리 없이 곧은 게 특징. 봄보다 먼저 찾아와 쌉싸름한 특유의 향과 맛으로 입맛을 돋운다.

이밖에 서산시 인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산뜨레’(☎042-716-2388)를 이용하면 달래와 냉이 이외 서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품을 만날 수 있다.



서산 달래 고르는 법

달래는 다양한 요리로도 변신한다. 달래 무침과 달래간장, 달래장 콩나물밥은 물론 된장국, 부침개 등 일상 요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달래를 수확하는 농민들.

달래오이무침 만들기



재료 : 달래 200g, 오이 1개, 굵은소금 약간, 양념장(진간장 3T, 설탕 1T, 식초 2T, 고춧가루 1T, 참기름 1T, 통깨 약간)

만드는 법

①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 고춧가루를 불리고 양념이 잘 배도록 한다.
② 달래는 뿌리 안쪽 불순물을 제거한 뒤 깨끗이 씻어 4~5㎝ 길이로 자른다.
③ 오이는 껍질 부분을 굵은소금으로 비벼 씻은 뒤 씨를 제거하고 어슷하게 썬다.
④ 오이와 달래에 양념장을 넣어 가볍게 버무린 뒤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한다.

※ 팁 : 오이는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나와 맛이 옅어지므로 적당한 분량만 만든다.

지역민이 추천하는 충청남도 4월 꽃

천안







관련 축제 **4. 10. ~ 11.** 별빛한바퀴 벚꽃로드, **예정 4. 18. ~ 19.** 북면 위례 벚꽃축제

공주









관련 축제 **4월중** 계룡산벚꽃축제

홍성







보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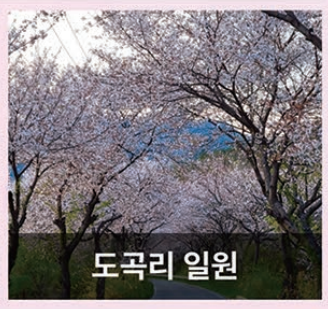


관련 축제 **4월초 예정** 주산봄꽃축제

계룡







관련 축제 **4. 10. ~ 12.**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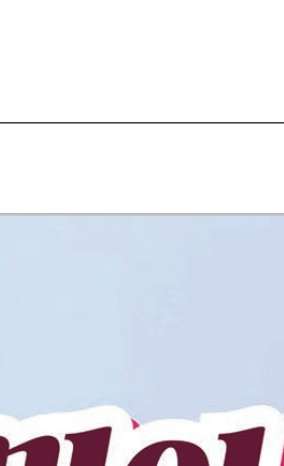
청양





관련 축제 **4. 11. ~ 12.** 청양 장승문화축제









서천



관련 축제 **4월중** 심동리 산벚꽃길 걷기대회

당진







관련 축제 **4. 11. ~ 12.** 순성벚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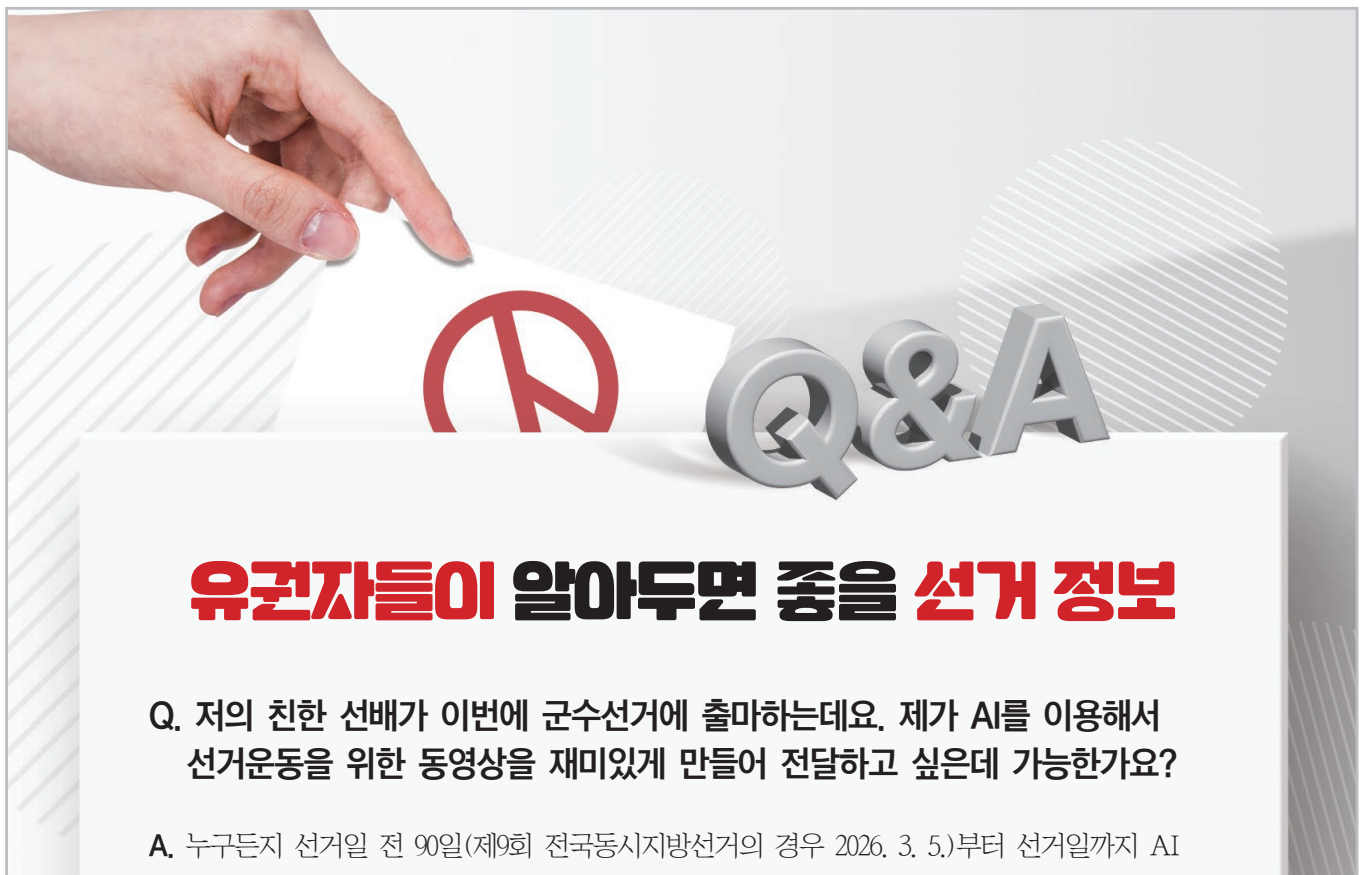
추천하는 봄꽃 관광 명소

그래픽 : 박건부





공주(동학사)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선거 정보

Q. 저의 친한 선배가 이번에 군수선거에 출마하는데요. 제가 AI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위한 동영상을 재미있게 만들어 전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3. 5.)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영상물, 노래 등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금지되니 유의해 주세요.

Q.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셨는데요. 누구는 아버지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A. 지방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5. 21. ~ 6. 2.) 중 같은 법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공무원이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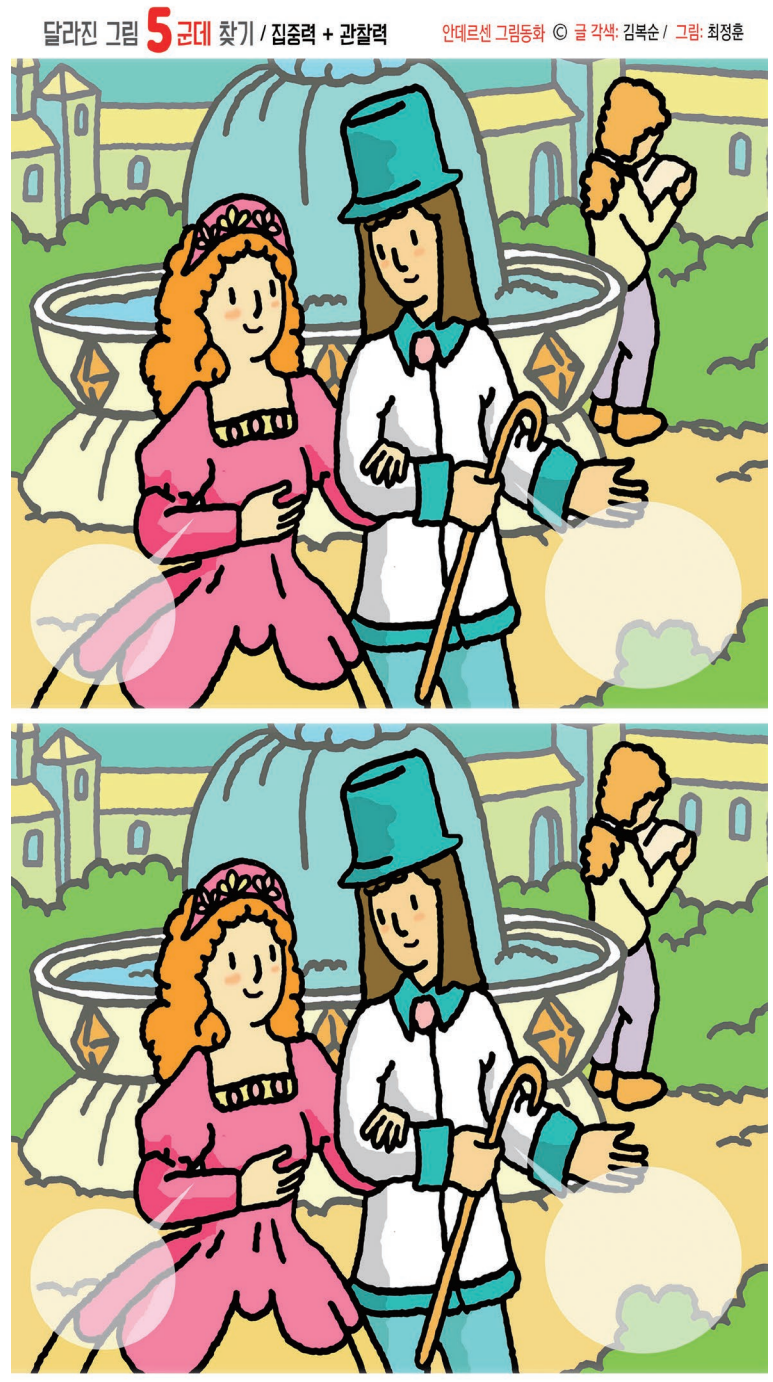
☎ 선거법 관련 궁금한 사항 등은 가까운 선관위에 문의하여 주세요.

제공/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484

두뇌회전 퀴즈 - 다른그림찾기



그림자는 공주와 춤을 추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야.'
공주는 그림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그림 속 말풍선에 자유롭게 글을 넣어보세요.



© 글 각색: 김복순 / 그림: 최정훈

정답 : 吕

'화장실 휴대폰' 치질 부르는 가장 확실한 습관

공공의료원 칼럼

현대인의 화장실 풍경에서 휴대폰은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뉴스를 읽거나 SNS를 확인하는 습관은 지루함을 달래주지만, 항문 건강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협이 됩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 있지 마라"는 조언을 넘어, 왜 화장실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의학적으로 위험한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파헤쳐 봅니다.

5분의 기적, 15분의 비극

건강한 배변 시간은 보통 5분 이내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 감각이 마비되어 10분, 20분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대장항문학회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배변 시간이 평균 2~3배 이상 길었으며, 이는 치핵(치질) 발생률의 유의미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항문에 가해지는 '중력의 역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자세는 해부학적으로 항문 주위 조직이 가장 취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울혈(Blood Congestion) 발생 : 변기의 도넛 모양 시트는 항문 주위의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휴대폰을 보느라 상체를 숙인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복압이 상승하고, 항문 주위의 정맥 다발인 '치핵 조직'에 피가 몰리게 됩니다.

▲조직의 늘어짐 : 항문 안쪽에는 배변을 부드럽게 돕는 '쿠션' 조직이 있습니다.

장시간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변기에 앉아 있으면 이 쿠션 조직을 지지하는 인대가 느슨해지고, 결국 조직이 항문 밖으로 밀려 나오는 치핵 탈출이 발생합니다.

'변비'와 '치핵'의 악순환

최근 심리학과 의학의 융합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켜 배변에 집중해야 할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뇌가 콘텐츠에 집중하는 동안 장의 연동운동은 소홀해지고, 이는 변의를 느끼면서도 배변을 깔끔하게 마치지 못하는 '잔변감'을 유발합니다.

결국 남은 변을 밀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강력한 압력은 항문 혈관을 터뜨리거나(치핵), 항문 입구를 찢어지게(치열)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항문 건강 지키는 3.3.3 법칙

항문 건강은 '습관의 과학'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올바른 배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3분 이내에 끝내기 : 휴대폰은 아예 화장실 문밖에 두고 들어가세요. 집중해서 짧은 시간 안에 배변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5도 자세 유지 : 필요하다면 변기 앞에 낮은 발판을 두어 다리를 올리세요. 직장과 항문의 각도가 펴지면서 힘을 덜 들이고도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하루 3번 좌욕 : 이미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로 3~5분간 좌욕하세요. 항문 주위 혈액 순환을 도와 울혈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항문은 '정보'가 아닌 '휴식'이 필요한 곳입니다. "치질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에 받는 숙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숙명을 고통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 문을 열 때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항문이 누려야 할 5분간의 고요함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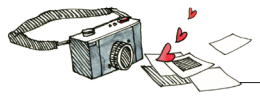


박 치 우
공주의료원 2외과 과장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 촬영장소: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 들녘



카메라로 담은 우리 동네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손길

가을 수확을 마친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 들녘에서 한 부부가 논에 남아 있는 볏단을 서둘러 모으고 있다.

수확 뒤 논에 남은 볏단은 밭작물 재배에 활용하기 위해 수거하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다.

특히 비가 내리면 논바닥이 물러져 기계나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들리면 농부의 마음은 더욱 바빠진다.

부부는 서로 호흡을 맞추며 볏단을 한 아름씩 모아 옮기고 차곡차곡 쌓아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고요한 들녘 위에서 이어지는 분주한 손길에는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부지런한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만 호
당진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기획지원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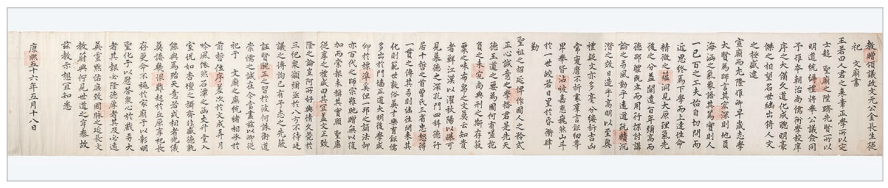






부자가 나란히 오른 최고의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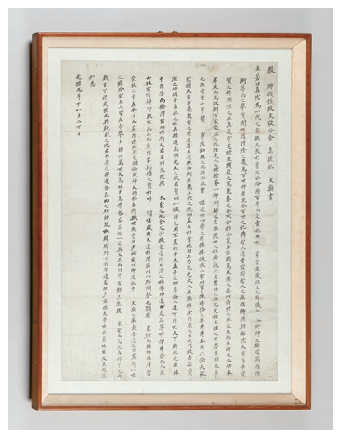
문화유산 100배 즐기기
(7) '문묘배향교서'



1717년 김장생 문묘배향교서.

충남역사박물관의 보물창고에서 꺼낼 유물은 조선 시대 선비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증표였던 '문묘배향교서(文廟配享敎書)'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예학의 대학자인 사계 김장생(1548~1631)과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1574~1656) 부자의 교서를 모두 소장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남다릅니다.

'문묘배향'이란 유교의 성인인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물을 함께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도덕적 모범이 되는 인물만이 누릴 수 있는 국가적 예우로, 조선 시대를 통틀어 단 18명(해동 18현)에게만 허락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김장생과 김집 부자는 그 18명에 이름을 올려, 가문의 영광을 넘어 충남 예학의 위상을 전국에 떨쳤습니다.



1883년 김집 문묘배향교서.

1717년(숙종 43년)에 내려진 김장생의 교서와 1883년(고종 20년)에 내려진 김집의 교서에는 국왕이 이들의 학문적 성취와 덕행을 찬양하며 문묘에 모시기로 결정한 배경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교서에 쓰인 글자들은 임금의 명령과 함께, 스승과 제자가 대를 이어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실천적 삶을 살았던 '충남 선비'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이 교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가치는 '예(禮)'의 본질에 있습니다. 김장생 부자에게 '예'란 고지식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근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립한 예학은 충남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에서 이 교서를 보게 된다면, 그 뒤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정신적 뿌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완성된 부자의 영광은, 오늘날 우리에게 '충남 선비'라는 자부심과 그 정신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어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이 선비들의 고결한 숨결을 교서를 통해 직접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종이 위에 새겨진 한자로 된 문장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할 '존중과 예의'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장 이경복



충남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성과보고전

<시절일기 時節日記>

기간 : 2026. 03. 11 ~ 2026. 03. 22
시간 : 10:00 ~ 18:00
관람료 : 무료
장소 : CN갤러리
(서울 종로구 북촌로5길 56-7, 정독도서관 앞)
문의 : ☎041-630-2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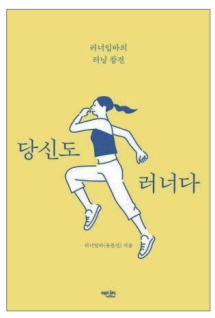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충남창작스튜디오 제2기 입주작가들의 창작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김가을 ▲김로이 ▲김민형 ▲이연숙 ▲이지연 ▲이화영 ▲장입규 ▲미렐라 트라이스타루 ▲아담 바즐릭 등 총 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작가들은 회화,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통해 각자의 시선으로 기록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사서들의 서재

운동화 끈 묶는 순간, 우리도 러너다



당신도 러너다/러너임바(유문진)/에디터/2026

요즘 가장 뜨거운 운동을 꼽으라면 단연 '러닝'이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몸 하나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수많은 사람을 길 위로 불러 모았다.

하지만 정작 러닝의 문턱에서 체력 부족이나 부상 걱정, 혹은 심리적 부담감으로 머뭇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 우리에게 유문진 작가의 『당신도 러너다』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응원을 건넨다.

이 책은 유튜브 채널 '러너임바'를 운영하는 러닝 인플루언서 유문진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아놓은 결과물이다. 총 7장에 걸쳐 달리기라는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러닝화 끈 묶는 법, 체형별 신발 선택법, 식단 관리 등 실질적인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이하며, 단순히 "뛰어라"라고 명령하는 대신, 러너들이 가질 법한 의문과 유형별 고민에 대해 세심한 '참견'을 덧붙여 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

이 책이 다른 운동 지침서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작가의 진정성에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작가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깨달은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저자는 무리한 기록 경신이나 완벽한 훈련 스케줄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대신 '달리기를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과 '꾸준함'의 가치를 강조한다. 달리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작가의 고백은, 독자로 하여금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용기를 얻게 만든다.

움츠러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달리기에 완벽한 봄이 찾아왔다. 러닝의 문턱에서 망설였던 이들이라면, 이 책을 가이드 삼아 첫발을 내디뎌보는 것은 어떨까. 운동화 끈을 묶고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모두 러너다.

책은 달리기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건강을 위해, 혹은 새로운 삶의 활력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려는 모든 '예비 러너'들에게 이 책을 기꺼이 추천하고 싶다.

/윤소윤 사서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문화 행사



알라딘과 요술램프

기간 2026.02.07.(토)~03.28.(토)
시간 토 13:30, 15:30
장소 도고아트홀
문의 041-542-5145



버블에스의 컬러버블쇼

기간 2026.02.18.(수)~03.29.(일)
시간 13:30, 15:30
장소 아산 도고아트홀
문의 041-542-5145



<연극> 뚱뚱한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

기간 2026.03.20.(금)~21.(토)
시간 금 19:30/토 15: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1566-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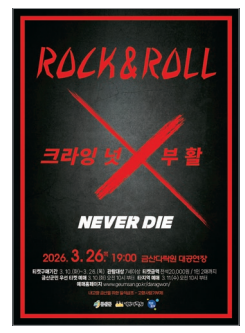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기간 2026.03.21.(토)
시간 14:00
장소 홍주문화회관
문의 041-634-0021



지브리 시네마 OST 콘서트

기간 2026.03.26.(목)
시간 19:30
장소 서천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문의 041-957-9048



Rock And Roll 크라잉 넛 X 부활

기간 2026.03.26.(목)
시간 19:00
장소 금산다락원생명의집
문의 041-750-3493



봄 인디, 보러 와유!

기간 2026.03.27.(금)
시간 19:00
장소 보령문화예술회관
문의 041-930-3427



명곡시리즈 I <백건우&브람스>

기간 2026.03.27.(금)
시간 19:30
장소 공주문예회관
문의 041-852-0844



2026 남진 전국투어

기간 2026.03.28.(토)
시간 17:00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88-7890



<연극> 더 드레서

기간 2026.04.03.(금)~04.(토)
시간 금 19:30/토 15:00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041-350-2911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KO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어릴 적 그 맛’ 지키며 세계시장 노린다

충남이어家

대를 이은 열정과 도전
⑭ 정든식품

아버지 ‘깨소미’, 아들 ‘누룽지건식빵’…전통 과자의 진화
“5대째 먹는 과자…역사에 남는 과자 만들고 싶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통 과자와 스낵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정든식품 황성재 대표.

1979년 시작된 과자 제조업체 정든식품이 2대째 가업을 이어가며 지역 식품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창업주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나서며 ‘오래 기억되는 과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든식품은 처음 대전에서 시작된 식품 제조업체다. 이후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충남 금산으로 공장을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40여 년 동안 전통 과자와 스낵을 꾸준히 생산하며 축적된 제조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식품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는 황성재(43) 대표는 창업주의 뒤를 이어 가업을 맡은 2세 경영인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가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부모 세대가 오랜 시간 지켜온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경영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황 대표가 경영을 맡았을 당시 회사 매출은 약 5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품 개발과 유통망 확대,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까지 대부분의 일을 직접 챙기며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 그 결과 경영을 맡은 지 7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매출이 약 25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다.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닌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성과다.

정든식품의 시작을 알린 대표 제품은 창업주가 개발한 ‘깨소미’다. 2000년대 초반 이름부터 제품 개발, 박스 디자인까지 창업주가 직접 만들어낸 과자로 고소한 깨의 풍미와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바삭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오랜 시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소비자의 입맛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황 대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깨소미의 레시피도 조금씩 발전시켜 왔다. 특히 최근에는 MZ세대의 입맛을 반영해 맛의 균형을 조정하면서도 기존 제품이 지닌 고소한 풍미와 정체성은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창업주가 깨소미로 정든식품의 기반을 다졌다면, 2대 경영자인 황 대표는 자신의 시그니처 제품인 ‘누룽지건식빵’으로 새로운 이름을 알리고 있다. 누룽지건식빵은 건식빵에 누룽지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더해 바삭하면서도 깊은 맛을 살린 제품이다.

특히 반죽 발효 과정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황 대표는 “생반죽이 잘 발효되면 반죽 자체에서 먹음직스러운 향이 난다”며 “그런 반죽을 오븐에 넣어 구워내면 훨씬 더 풍미 있고 맛있는 과자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제품 개발 과정에는 황 대표의 세 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딸들에게 먼저 맛을 보게 한다”며 “10개 중 9개는 외면을 당하지만 하나가 선택되면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찾았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웃었다.

정든식품이 오랫동안 지켜온 경영 철학은 ‘정직한 제품과 신뢰’다. 눈앞의 이익보다 품질을 우선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오래가는 기업의 기반이라는 생각이다.

정든식품은 최근 K-푸드 열풍에 힘입어 해외 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과자를 유통업체를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직접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스낵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깨소미처럼 오래 사랑받는 과자를 넘어 5대째 먹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는 과자를 만들고 싶다”며 “지역에서 시작한 작은 식품기업이지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K-스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환갑에 태극마크 단 예산 김동경 목사

생활체육 탁구 국가대표 선발
강릉 세계마스터즈 출전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한 2026년 생활체육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동경(61·사진) 다운지역아동센터장이 국가대표 반열에 올랐다.

1월 17일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생활체육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는 60~64세부 남자 단식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 당당히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이룬 이 쾌거는 평생을 탁구와 복지, 그리고 목회라는 세 갈래 길에서 헌신해 온 그의 집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이번 선발전은 오는 6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세계마스터스 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최정예 생활체육 국가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마스터스 탁구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2500여명의 탁구 애호가들이 집결하는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축제다. 국가대표 선수단에는 유니폼과 참가비 및 숙박비 일체가 지원된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 라켓을 잡은 김 센터장은 소년체육대회 충남 대표로 선발돼 시상대에 설만큼 촉망받는 엘리트 선수였다.

예산초 4학년부터 천안 계광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3년여간 선수로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라켓을 내려놨다.

이후 틈틈이 라켓을 들던 김 센터장은 1989년부터 도민체전에 군 대표로 매년 출전하는 등 탁구와의 인연을 이어가 현재 예산군탁구협회 사무국장, 충남탁구협회 이사, 예산스포츠클럽 탁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무한정보신문 황동환 기자

정월대보름 윷 던지며 ‘하하호호’

당진시 송악읍 가교2리 척사대회

당진시 송악읍 가교2리(이장 박성수)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난 1일 마을회관에서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척사대회는 ‘윷을 던진다’는 의미의 전통 놀이로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마을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는 가교2리 주민들과 여러 내빈이 참석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민 화합을 위한 윷놀이는 여성팀과 남성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모든 주민이 차례로 윷을 던지고 놀이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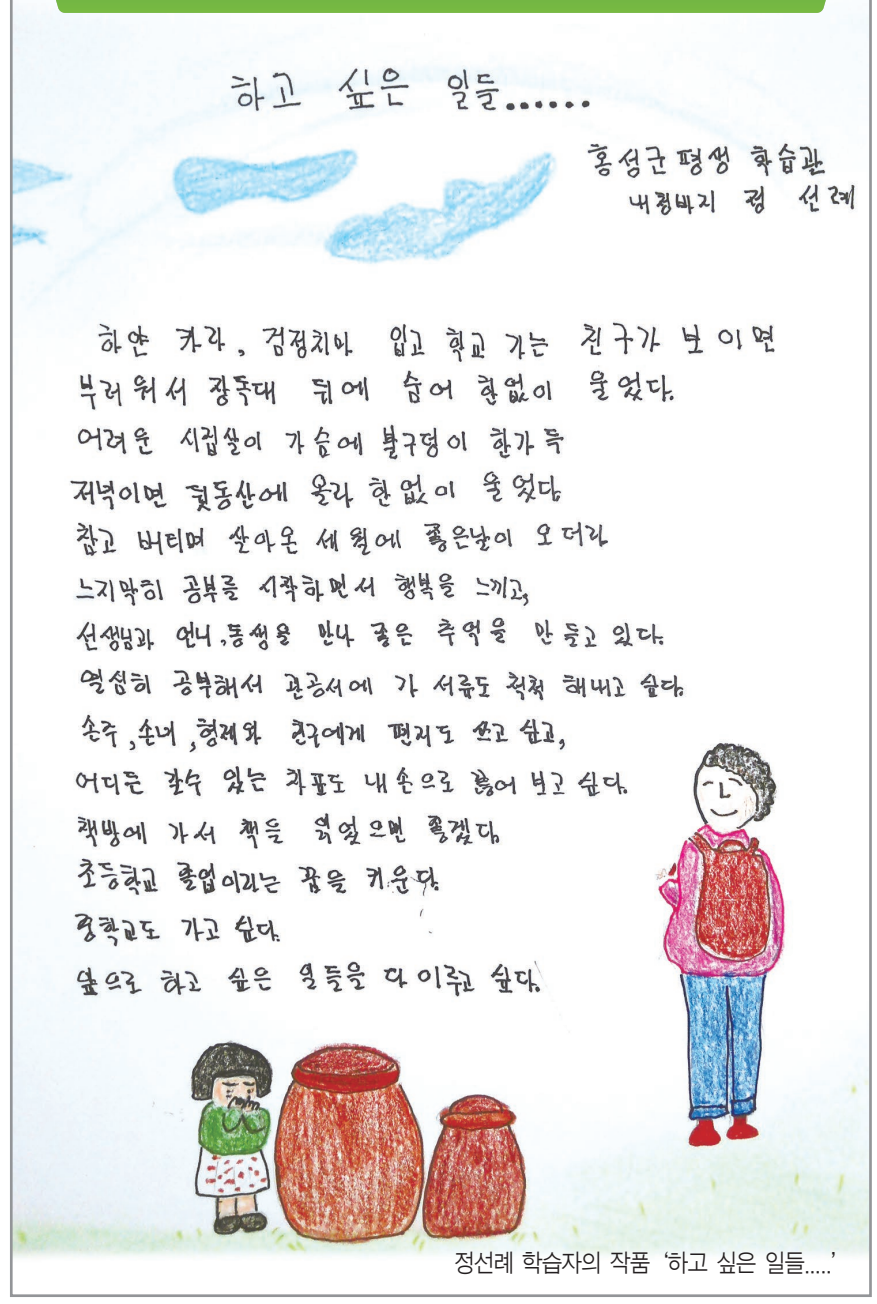
이외에도 다트 경품 추첨과 물병 던지기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됐다. 또한 가교2리 부녀회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함께 나누며 마을의 정을 더했다.

/당진시대 이태경 기자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솜씨 자랑



정선례 학습자의 작품 ‘하고 싶은 일들.....’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3년 차'에 고(告)함

내포칼럼



홍상은
공주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센터장

얼마 전 한 회사가 오랜만에 정규직을 뽑았다. 2명을 뽑는데 100명 가까이 지원자가 몰렸다. 그 회사가 운영이 잘된다는 소문과 다른 곳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다니는 A는 얼마 전 3년 차가 되어 승진했다. A 왈 "전에 들어오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지금 같으면 못 들어왔을 거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럼, 일을 열심히 해야 할텐데, 3년 차인 A는 물론 A와 친한 B도 일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시계추처럼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다. 9시에 딱 맞춰서 출근을 하고, 시간외근무는 수당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취미는 시체놀이. 처음에는 일을 좀 하려고 했었다는데... '3년 차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정체기이기 때문일까?

'3년 차 신드롬'이란 '조직 내에서 경력 3년 차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열정을 잃고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한다. 직장 내에서 업무를 익히고 숙련도가 올라가는 3년 차는 직장 내에서 손발이 되어 본격적으로 실무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3년 차에 이런 신드롬을 앓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장 3년 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3년 차는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업무 숙련도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일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둘째, 일과 사람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협업에 곤란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 **'3년차 신드롬'은 경력 3년차에 열정이 식어 이직을 생각하는 현상 극복하는 방법은 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기**

셋째,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보상이 작다고 느낀다. 실제로 조직에서 1~3년차는 연봉이 높지 않다. 일은 내가 다하는 것 같은데, 일 없어 보이는 팀장의 월급이 나보다 많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승진 등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 심리는 극대화된다.

넷째, 조직과 사람에 익숙해지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지만, 어느 때보다 이 문제점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

다섯째, 일에 익숙해지면서 주위의 기대감이 상승하게 되고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3년 차 신드롬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얼까? 이제 퇴직이 몇 년 안 남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인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말이다.

최진석 교수의 『건너가는 자』에 나온 구절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할까요? 소명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략)... 소명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찝찝해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명을 아는 자는 자신을 아는 자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중국의 한 경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천명(天命)의 길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양쪽으로 길을 비키며 그 사람을 응원하고 돕는다고 한다.

뒤돌아보니 공주문화관광재단에 들어와 공연장을 운영한 3년 동안이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었다. 새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서로 도와주려 했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면 거의 모든 사업에 선정되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운영위원도 하게 되었고, 전국 공연장의 사람들과 안면을 트고 가까워지게 되었다. 처음이라 여러모로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팀원들은 아무도 "못하겠다", "힘들다" 얘기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하자고 하면 같이 '으쌰 으쌰' 해줬다.

그저 먹고 살려고 출퇴근을 반복하는 삶. 행복한가? '왜 사는지' 스스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삶, 만족하는가? 더 큰 일은 그 지겨운 삶을 30년 동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 3년 차인 당신, 이제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때이다.

김민지 시인의 산책 편지



일부터 일까지

일 끝나고 가는 길. 카페 유리문에 붙은 운영시간에 눈이 닿았습니다. 0이 있거나 0이 없는 빈자리. 불 꺼진 카페 안. 평일 점심마다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 저리 한산한 때가 있다니. 온앤오프. 일과 쉼이 분명한 공간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도 저 공간을 채웠다 떠난 사람들도 지금쯤 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연중무휴. 간혹 어떤 가게 유리문에 붙어 있는 그 네 글자. 누군가에게는 언제 찾아도 좋겠다는 여유로움을 주는 말이지만, 그곳을 지키는 사람의 시간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도 매일 쉼 없이 그 자리에 불을 켜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때는 편의점이 도심의 등대같이 보였어요. 이제는 한 길에 여럿 들어서 있기도 한 탓에 별 감흥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늦은 밤이나 새벽 귀갓길에 편의점 불빛이 환하면 마음이 놓여요. 그러나 환한 저 안에 서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체가 무거우면 놓이기 마련인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네요.

마음의 중력은 안팎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한없이 졸아붙고 한없이 찢길 듯한. 근데 몸도 그렇지 않나요. 긴장과 이완에 다 작용하니까요. 요즘 내 몸의 긴장도는 얼마나 되고 이완하는 시간은 충분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일할 때는 좀처럼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중 일하는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많기도 하고, 꼭 돈을 벌지 않는 일이더라도 긴장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긴장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어쩐지 무섭습니다. 긴장감은 귀여움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요.

긴장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즐겁게 하자 해도 체력이 떨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완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쯤 실온에서 보관한 사과보다 주름이 덜 간 얼굴로 늙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지 못해 그건 좀 아쉽지만, 꾹꾹 누르다 막 터져 나오는 웃음이 있다는 게 어쩌면 살아가는 재미려나.

뭐 가끔은 실소여도, 그 짤막한 웃음 뒤로 제 호흡을 새로 정돈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좋은 것이겠지요. 이 글을 적다 보니 무안하면 웃는 버릇을 지닌 몇몇 사람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웃음은 여러모로 사람을 살리네요.

그러고 보면



요즘은 키오스크에서 계산하는 순간이 많아졌죠.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가 많아지기도 했고요. 밤새우며 지킬 사람 없으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닌가 해요. 비단 일자리를 잃는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요 며칠 곰곰 생각했습니다.

사람 대할 일 없이 계산하기. 피곤함에 서로 띡띡거릴 일 없이 혼자 바코드를 찾아 띡띡거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안할 일이 없어지니 억지로 웃을 일도 줄어드는 것 같다.

감정노동을 비롯한 무수히 고단한 노동에서 벗어나는 삶. 분명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구체화하기 이전에 세상 모든 것을 일로 치부해 금방 지치고 마는 현재를 돌아보게 되네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여전히 모르겠지만, 꺼내어 두려고 합니다. 억지로 힘내자는 얘기 대신, 순간순간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자는 사소한 당부. 여기 마음에 담아 놓고 갑니다.

순식간에 사냥하는 작은 맹수

재미있는 동물사전

스라소니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중에 당대 최고 수준의 싸움실력을 자랑하는 '시라소니'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있었다. 시라소니는 수십명을 상대로 공중에서 훨훨 나르며 박치기, 돌려차기 같은 화려한 필살기를 구사하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었다.

"나 알디? 내래, 시라소니야!"

시라소니를 맡았던 그 배우의 눈빛 연기와 말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시라소니.. 어떤 동물일까?

정확한 명칭은 '스라소니'이며,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육목, 고양이과, 스라소니속의 동물로, 원래 '시라손'으로 불리다가 세월이 흐르며 '스라손'으로 바뀌고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스라소니'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영어로는 Lynx 라고 하는데, 골프웨어 브랜드에서 무섭게 생긴 고양이 머리 로고가 기억난다.

스라소니는 몸길이 80~130cm 정도에 수컷은 20kg, 암컷은 15kg 정도이며, 외형적으로 특징적인 사항은 귀끝에 안테나 같은 긴 털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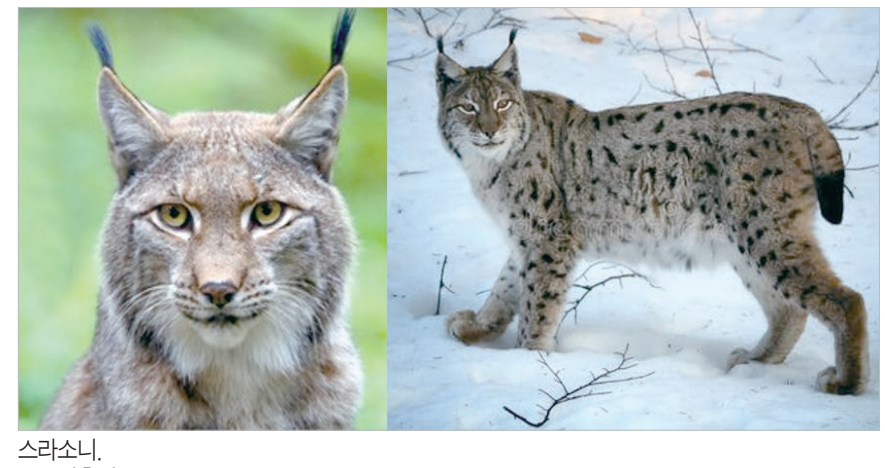
이 붓처럼 생긴 털은 음파를 포착하여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학설이 있다.

스라소니는 또한 꼬리가 길지 않고, 크게 포효하며 울지도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야행성인 스라소니는 주로 단독생활하며, 몸집이 다른 맹수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더 큰 노루나 고라니, 멧돼지까지도 단독으로 사냥할 만큼 공격력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1급이 되어, 우리나라의 자연상태에서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박수진 수의사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



스라소니.
※그림출처 https://thumbs.dreamstime.com/b/eurasian-lynx-winter-13466980.jpg?w=450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의회교실 충남도의회는 3월 10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청년여성 유출 구조적 해법 찾는다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착 지원 정책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는 3월 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청년여성이 선택하는 충남 만들기 정책 마련'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간담회는 ▲성별 고용 ▲임금 격차 ▲산업구조 편중 ▲주거·돌봄 여건 등 청년여성 유출의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청년여성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신순옥 의원(비례)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청년여성 유출과 여성 고용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충남의 인구 유출입 추이를 보면, 20~34세 여성은 2020년 이후 7662명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적으로 순유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청년여성의 유출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적 인구 회복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여성인력의 공백을 심화시킨다.

지정토론에서는 연구기관, 경제계, 청년네트워크, 행정 관계자 등이 참여해 ▲청년여성의 고용의 질 개선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 ▲주거 안정 기반 마련 ▲돌봄 인프라 확충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구모임

AI 기술로 주민자치 문턱 낮춘다

안종혁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는 3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안종혁 의원)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천안9),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언어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AI가 정책 언어로 변환·분석해 행정 주체에 전달하는 '지능형 자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민자치 연구성과' 활용 방안 논의

이현숙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은 3월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사진〉

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며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성과가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비례)이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 신한철 의원(천안2)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정책 발전 방향과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현숙 의원은 "기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자치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시론

지역주민 정치 효능감 높여야 한다

정치적 효능감은 민주주의 참여와 숙의를 지속시키는 에너지다. 시민들 스스로 '내가 어떤 정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나의 삶과 세상이 달라진다'고 믿는다면 정부와 의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도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사회에선 극단적 대립 대신 합리적 절차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개인들은 시민의식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며,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은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제도적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유지해 온 한국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과 예산을 다루며, 지역의 많은 정책들이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은 내가 사는 지역을 스스로 디자인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시대적 열망을 실현한 제도적 산물이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통제 속에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정착됐음에도 주민의 체감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치와 분권을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역할에 제약을 받아온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주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들이 이뤄져야 한다. 점차 복잡해지는 행정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을 주도하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고도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분야별 인재 영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입법 지원과 예산 감시 기능을 포함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의회의 판단이 전문성과 근거를 갖출수록 주민의 신뢰는 높아진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통해 입법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권과 예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조례·자치입법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법령 통제와 세부 위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의회의 정책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예산심의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 과정에 대한 상시적 감시·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이 체감하는 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명문화·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때, 주민들은 비로소 의회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 정치가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려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주민들이 지방정치의 주체로서 효능감을 회복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권의 확대가 실현되어야 한다.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남 서로e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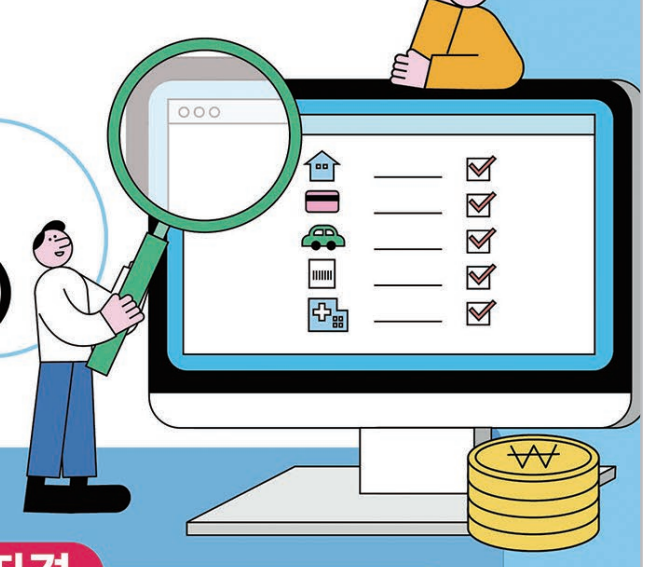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도민의 생각이 사업이 되는 순간,
도민이 참여·결정하는
2026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집중접수기간

2026. 3. 3.(화) ~ 5. 27.(수)



공모분야 및 규모

도정책사업 100억
일반분야 60억
청·소년,저출산,도민안전 40억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50억

일반 : 도 전반에 파급 및 시군 연계 추진 사업
청·소년 :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저 출 산 : 일가정양립,인구소멸지역 지원,아동·여성 지원
도민안전 : 도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재해 예방사업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도비 30% : 시군비 70%

참여자격

충남도민 누구나
※ 단, 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참여방법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 **충남서로e음** https://e-um.chungnam.go.kr
- **이메일** yaya2169@korea.kr
- **우편**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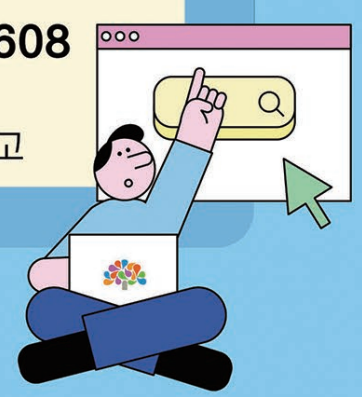
※ 이메일, 우편접수는 집중접수 기간 마감기한인 26. 5. 27.
도착분까지 한함.

접수기간

2026. 3. ~ 12.(연중상시)
※ 단, 5. 27.(수) 이후 접수건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심사

문의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041-635-3608
※ 세부사항은 충남서로e음 홈페이지
(https://e-um.chungnam.go.kr) 참고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